



(사)한국오리협회 제18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 일시: 2009년 2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대전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

지난 2월 4일(수), 대전 유성호텔에서 본회 회원 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김만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4월 발생한 AI로 인한 고통과 소비위축 등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오리고기 군납실시, 원종오리사업을 위한 축사부지 확보, 자조금사업 확대를 통한 소비촉진 홍보활동,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실시, 오리 표준축사 설계도 보급, 오리털의 수출 지원품목 선정 등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다.”며 “이제 2월 말이면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고문님, 임원님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업, 각시·군 축산관계자, 전국축산 및 농민단체 여러분들의 협조에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차기 회장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하였다.

이어지는 정기총회 1부 행사에서는 장관 및 회장표창 시상식이 진행돼, 농식품부 장관표창 수상자로 영양축산 흥성대 대표(대리수상), 충북지회 이강홍 회원, 광주전남지회 정정우 이사, 코리아팔도 강민수 대표(대리수상) 등 총 4명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본회 회원 중 우수회원 및 협회 사업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회장표창은 경기 북부지회의 최호열 회원(대리수상), 경기남부지회 윤대섭 회원, 충북지회 이상욱 회원, 전북지회 임춘배 회원, 전남지회 박



▶연회장을 가득 채운 본회 회원들

【표창대상자】

◎농림부 장관표창

- ◆영양축산: 홍성대
- ◆충북지회: 이강홍
- ◆광주·전남지회: 정정우
- ◆코리아팜도: 강민수

◎회장표창

- ◆경기북부지회:최호열 회원
- ◆경기남부지회:윤대섭 회원
- ◆충청북도지회:이상욱 회원
- ◆전라북도지회:임춘배 회원
- ◆전라남도지회:박성현 회원
- ◆오리산업 활성화 유공자: 박성진 씨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성현 회원, 오리산업 활성화 유공자로 충남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박성진 씨에게 수여되었다.

시상식 후 이어진 2부 총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17회 정기총회의 사경과 접수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협회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승인안과 2009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지난 2009년 제1차 이사회

에서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 정관개정 안에 관해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이번 제18대 정기총회가 회장 및 임원단이 교체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무투표 당선된 이창호 이사를 제외한 각 분과별 위원장 선출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토종오리분과위원장에 윤영호 씨, 부하분과위원장에 이덕행 씨가 분과별 협의를 거쳐 선출되었으며 사육분과위원회에서는 충북의 임종혁 씨와 전북의 유용기 씨가 경합을 벌인 결과 간발의 차이로 임종혁 씨가 위원장으로 새로이 선출돼 차기 회장과 함께 임기를 같이 할 예정이다. 계열유통분과위원장은 2월 중으로 분과 내에서 협의 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직에는 전남의 강화섭 씨, 경기의 이석호 씨, 최인호 씨가 추천돼 협의 끝에 전남에 1명, 경기도에 1명을 선출키로 결정, 최종적으로 강화섭, 최인호 씨가 선출되었다.

선거 종료 후 이창호 이사는 회장 당선 인사말을 통해 '첫째 분과위원회 활성화, 둘째 지회 및 지부 활성화, 셋째 언론매체 문제점 해소, 넷째 월간지 질적 향상 등 네 가지의 해결과제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나타냈으며 임원단 선거를 끝으로 제18대 정기총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표창 수여



우수회관 표창 수여



이사추천단에서 선출된 사육분과위원장 선거 권정



부회총회로, 전국육우농가대표총회



▶새롭게 선출된 임원단(왼쪽부터) 최인호 감사, 강화섭 감사, 임종혁 사육분과위원장, 정정우 전남지회장, 현 김만섭 회장, 이창호 차기회장, 김학영 전북지회장, 정연우 충북지회장, 이덕행 부하분과위원장, 윤영호 토종오리분과위원장



▶제2부 본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는 김만섭 회장